

“PC불교통신으로 백년가약”

“구리님과 들꽃님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온라인 메시지가 연일 게시판에 등장한 후 지난 16일 있었던 결혼식장의 현장스케치가 여울이에 의해 올라왔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설악산 일대의 사찰로 신혼여행을 떠난 동안에는 온갖 부러움과 상상의 메시지가 등장했고 여행을 잘 다녀왔다는 신혼부부의 경과보고와 축하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인사를 끝으로 천리안 불교동호회 제1호 커플탄생의 막이 내렸다.



◇ 지난 16일 천리안불교동호회 회원으로 회축을 밝힌 여성혁씨와 정진희씨가 동호회 회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부케를 던지고 있다.

이것은 천리안 불교동호회 작년 부시 삼으로 활동했던 여성혁(일명 구리) 씨와 회원 정진희(일명 들꽃)씨가 천불동 불교동호회 활동을 통해 부부의 인연을 맺어 대표시상 박수호(여울)씨의 사회로 여러 불교동호회 회원과 하객들의 축하로 결혼하게 된 경과이다.

하이텔, 천리안, 나무누리등 PC통신을 통한 불교동호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컴퓨터가 신세대 첨단 포교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동호회활동을 통해

부부의 인연을 맺어 불자가정을 이루는 커플이 늘고 있다. 컴퓨터 불교동호회 회원으로 처음으로 첫 웨딩마치를 올린 쌍은 지난 93년 초대 하이텔 불교동호회 대표시상이었던 서동호씨와 정진희씨 부부. 그후 작년에는 지역모임 갖바위의 운영을 맡고 있던 유치호씨와 김옥란씨가 부부의 인연을 맺어, 범천스님을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PC통신을 통한 이들 커플들은 대부분 대화방을 이용, 그들의 생각과 불교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면서 친해지다가 전국모임이나 정기모임에서 상삼만 해왔던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보게된다. 서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전자 메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게 되고 같은 소모임활동을 해나가기도 한다. 천불동 제1호 부부 정진희씨는 “불교에 관심은 많았으나 직접 사찰에 찾아갈 용기가 나질 않아 불교동호회에

대방을 불교동호회에 가입시키기도 하고 신행활동에 소극적인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이끌기도 한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회원들 사이에도 두세쌍 정도 결혼이 진행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하이텔 불교동호회 대표시상을 맡고 있는 오상홍(상주대학교 교수)씨는 동호회 회원들간의 커플탄생은 운영진측에서도 적극 환영하는 일로써 “신행활동을 함께 할 수 있고 글로써 서로 교감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불자가정을 이룰 수 있다”며 “회원들의 건전한 만남과 사귀기로 동호회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방을 불교동호회에 가입시키기도 하고 신행활동에 소극적인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이끌기도 한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회원들 사이에도 두세쌍 정도 결혼이 진행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하이텔 불교동호회 대표시상을 맡고 있는 오상홍(상주대학교 교수)씨는 동호회 회원들간의 커플탄생은 운영진측에서도 적극 환영하는 일로써 “신행활동을 함께 할 수 있고 글로써 서로 교감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불자가정을 이룰 수 있다”며 “회원들의 건전한 만남과 사귀기로 동호회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수미 기자

신행활동 함께하며 건전한 불자가정 꾸며

여성혁·정진희 커플등 세쌍 탄생...에비쌍도 다수

가깝했다”며 “동호회 활동은 생활속에서 불교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심자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늦은 밤 한글자 한글자 화면에 떠오르는 문자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의 전달은 새로운 경험이며 상대방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것이 PC를 통한 데이트가 갖는 매력이라고 말했다. 또 회원들의 결혼식날은 따로 일정을 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국에 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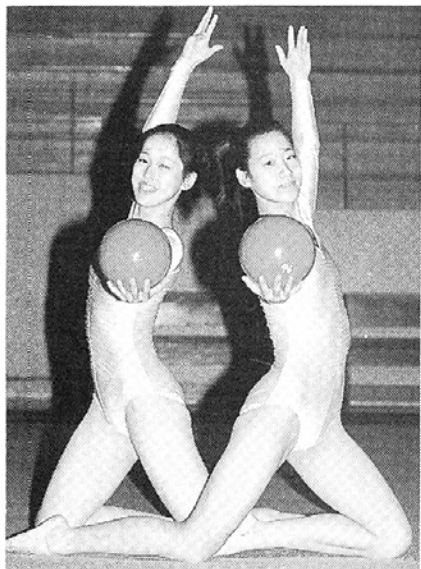
어져 있는 회원들이 한명 한명 모이게 되고 서로 얼굴도 모른채 대화만 나눠왔던 회원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 이렇듯 첨단매체를 적극 이용 활동하는 이들 커플들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은 거의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불교동호회에서 인연을 맺은 커플이 아니라도 일반 PC대화방에서 만나 상

선수에게 있어 세밀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두 선수는 힘든 훈련이 반복되는 요즘 교내법당을 찾아 명상에 잠기곤 한다. 그래서인지 휴식시간이나 운동후에도 항상 명상에 잠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 조용한 법당에서 명상을 하면 새로운 동작 연출과 집중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

일단 체조복을 입으면 눈에 불꽃을 튀기는 라이벌이지만 평소에는 툭도 없는 단짝이다 “보영이는요. 몸이 저보다 부드러워서 유연성이 뛰어나고 밸런스도 좋아요.” “지영이는 연기에 힘이 있어요. 점프력이 좋고 표현력이 저보다 월등해요.” 경상복을 갈아입고

김정근 기자

“우아한 율동 맑은 불심에서”



◇ 세계 최정상을 향해 연습에 여념이 없는 셋별스타 백자영(왼쪽), 강보영 양.

리듬체조 셋별 진선여고 백자영·강보영 양

“때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 일단 음악이 시작되면 모든 걸 잊게됩니다.” 곱고 해맑은 얼굴만큼이나 고운 심성을 지닌 백자영 강보영양(이하 진선여고 1년)이 최근 한국리듬체조계의 셋별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진각종합 진선여고에 나

일단 체조복을 입으면 눈에 불꽃을 튀기는 라이벌이지만 평소에는 툭도 없는 단짝이다 “보영이는요. 몸이 저보다 부드러워서 유연성이 뛰어나고 밸런스도 좋아요.” “지영이는 연기에 힘이 있어요. 점프력이 좋고 표현력이 저보다 월등해요.” 경상복을 갈아입고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인증 캠페인

훈련 틈틈이 교내법당 찾아 명상잠겨

“6월 세계대회서 좋은 성적 얻어야죠”

란히 입학한 이들은 오는 6월 경기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는 96세계리듬체조선수권대회 단체선발전에서 똑같이 선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두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리본과 불을 이용 뛰어오르기, 제자리돌기, 도움잡기 등 하나하나의 완벽한 동작과 호흡맞추기를 위해 하루 7시간의 반복된 강훈련을 마칠이 이겨내고 있다. 1분에서 1분 30초의 짧은 시간 동안 음악의 템포에 따라 유연하고 힘있는 움직임을 연습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균형을 유지하는 연기를 펼쳐야하는 만큼 체조

보통의 여학생으로 돌아오면 서로를 아끼고 칭찬해 주기 바쁘다.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박희순 국가대표코치는 “아직 어린 나이로 성숙미가 다소 떨어지지만 유연하고 순발력과 힘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한국의 리듬체조를 짙어질 기동들이다”고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1백여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선수권대회의 영광을 그리며 법당을 찾는 이들의 얼굴에서 환한 관세음보살의 미소를 엿볼 수 있다.

김정근 기자

만화 법구경

* 올바람의 장 *

질투와 인색과 간교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이향원

社令 과장: 공영달 총무부

이런 인사는 공대리만 승진했네

노대리가 공대리보다 1년 선배인데 불나겠다

공모님! 무슨 좋은 안내문이라도 불러 있나?

아! 노대리님

영! 공대리가 과장! 나... 나... 나를 제치고 그놈을

노대리님 마음 상하시죠?

마... 마음 상하긴 하얏하

지난주 총무부장이 나하고 공대리를 놓고 고... 고민하고 있길래

나... 나는 일하는 즐거움만 있지 직급에는 전혀 관심 없으니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공대리를 승진시켜 주라고 말했더니 그게 반영된 것 같아 하얏하

아! 공대리님 이다

대리님이 아니고 과장님 이셔

공과장님 축하합니다

무슨 축하?

과장으로 승진하신 것 모르세요?

축하합니다

여! 공과장 축하합니다

아...! 노선배님 하얏하

최송합니다

최송은...! 최근부 승진 덕이나 한잔 내게나

하얏하 난 공대리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 하거나 용모가 변듯하다고 해도 질투와 인색과 간교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내가 좋은 곳으로 안내하지

어디 오늘 음악 한번 써 바라

과장님 먼저 드시 와요

아니! 여긴 몸살음이 많아

이런데서 쓸데없이 돈 쓸 것 없어요

들어갔다간 수십만원 그냥 꺼져요 다른데 감시다

아! 공과장 승진 기본 망치고 싶어서 그래

기분대로 살다가는 망한다구요

저쪽 실비집으로 갑시다

아니! 저것들이

지출은 가볍게 축배는 기분 좋게

인색과 간교를 뿌리째 뽑아 없애버리고 성냄에서 벗어난 사람을 훌륭한 인물이라 한다

성야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42장경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붓다에서 일반에 도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짐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내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에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달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 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미타 보하비(appa deepo bhava).....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행 금고들, ‘나는 조약돌로 본다.’고 부리는 말한다.

그대는 삶의 비탄에서 갖가지 조약돌을 모으며 놓고 있는 어린아이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기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가고 미끄러져 간다. 그대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망쳐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내가 도를 지켜 큰 지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평소엔 그대기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기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장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만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함축하여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소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오소 라즈니쉬 강역 / 황광우 · 이광욱 옮김
신국문 전2권 / 각권 7,500원